

2023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

농업·농촌의 혁신과 미래
농업전망
2023

02

농업·농가 경제 동향 | 2022년 농업생산액

농업생산액 전년 대비 1.0% 감소

59조 2,170억 원(21) → **58조 6,310억 원 (22)**

축산업(양잠 포함) 생산액
전년 대비 3.7% 증가
(25조 5,080억원)

축산업(양잠 포함)
[43.5%]

재배업
[56.5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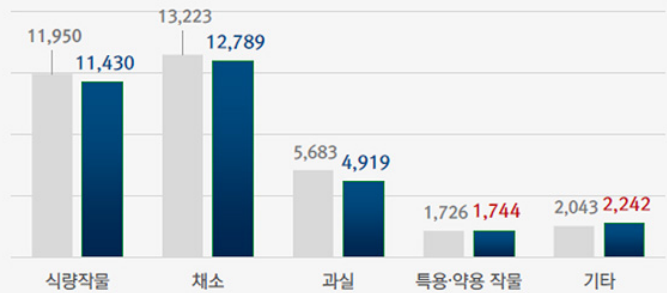
재배업 생산액
전년 대비 4.3% 감소
(33조 1,230억원)

재배업 생산액 전년 대비 4.3% 감소
34조 6,240억 원(21) → 33조 1,230억 원(22)

식량작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년 대비 4.3% 감소 쌀 가격 하락
채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년 대비 3.3% 감소 일부 양념 채소의 생산량 감소
과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년 대비 13.5% 감소 사과, 포도, 단감 가격 하락

(단위: 십억 원)

■ 2021 ■ 2022

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,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 (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)

축산업(양잠 포함) 생산액 전년 대비 3.7% 증가
24조 5,930억 원(21) → 25조 5,080억 원(22)

증가 축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돼지, 닭, 오리 전년 대비 각 12.2%, 27.8%, 21.5% 증가 돼지, 오리 수요 증가에 의한 가격 상승
감소 축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육우, 산란계, 젖소 전년 대비 각 11.0%, 6.0%, 0.9% 감소

(단위: 십억 원)

■ 2021 ■ 2022

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,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 (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)

농가소득 전년 대비 1.6% 감소 4,776만 원(21) → 4,699만 원(22)

농업소득

- 전년 대비 14.7% 감소
- 농업경영비 증가 (비료비 132.7% 상승 등)

농외소득

- 전년 대비 5.3% 증가
- 코로나19 회복세 (숙박, 음식점 등 수요 증가)

이전소득

- 전년 대비 0.3% 증가
- 보조금 수령액 증가

(단위: 천 원)

■ 2021 ■ 2022



자료: 통계청,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 (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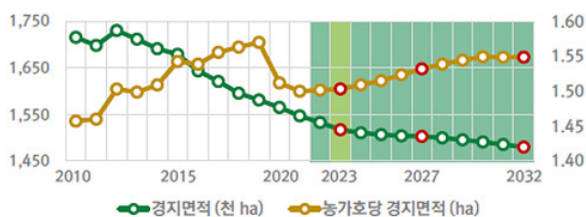
경지면적

2023년 경지면적 전망

전년 대비 1.0% 감소한 151.7만 ha
(중장기)농지 전용 수요 증가로 경지면적 지속 감소

2023년 농가 호당 경지면적 전망

전년 대비 0.1% 증가한 1.5ha



자료: 통계청,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 (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)

사육 마릿수

2023년 우제류 전망

전년 대비 0.2% 감소한 1,540만 마리



한육우

전년 대비 0.5% 증가한 380만 마리



돼지

전년 대비 0.3% 감소한 1,130만 마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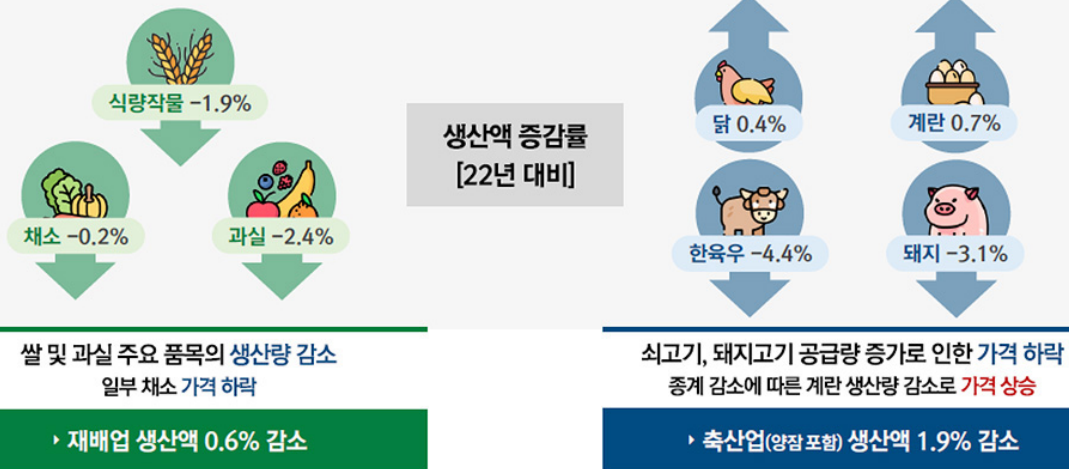
∴ 1세 이상 소 사육 마릿수 증가, 모돈 감소

2023년 가금류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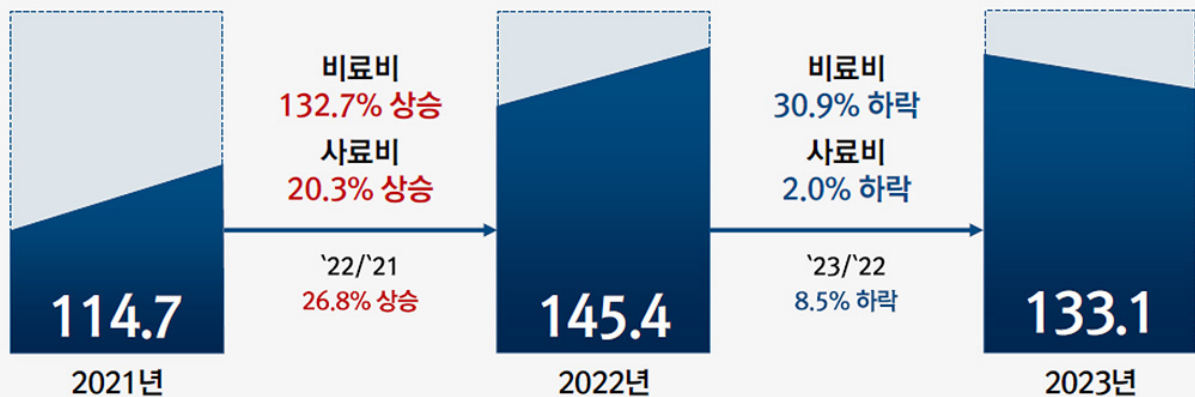
전년 대비 1.6% 감소한 1억 7,350만 마리

∴ 종계 입식 마릿수 감소, 시로 인한 매물 처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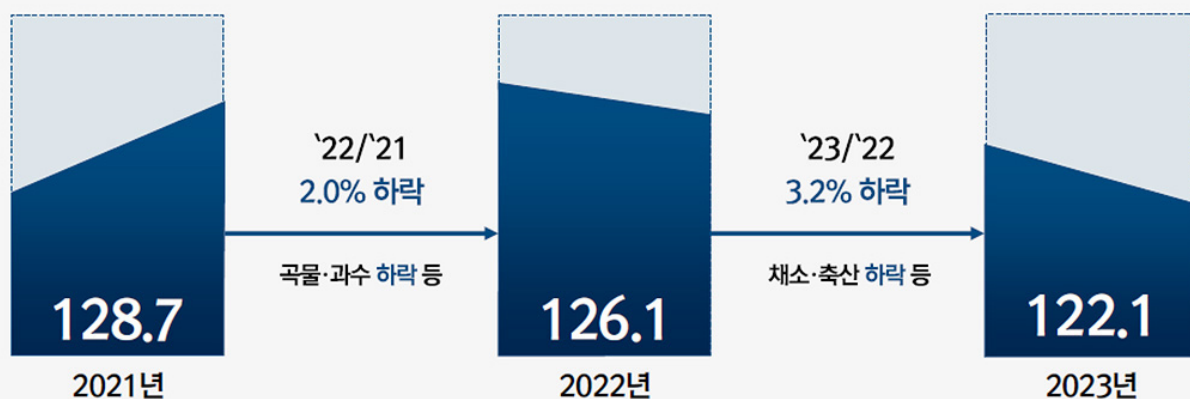
2023년 농업생산액 전년 대비 1.2% 감소한 57조 9,340억원 전망



2023년 농업구입가격지수 전년 대비 8.5% 하락



2023년 농가판매가격지수 전년 대비 3.2% 하락



2015=100 | 자료: 통계청,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 (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)

2023년 농가 소득 전년 대비 2.2% 증가한 4,802만 원 전망

농업·농외 소득

농업소득 전년대비 10.7% 증가한 1,223만 원 전망

∴ 경영비 부담이 크게 완화

농외소득 전년대비 2.3% 감소한 1,841만 원 전망

∴ 사업외소득 감소

이전·비경상소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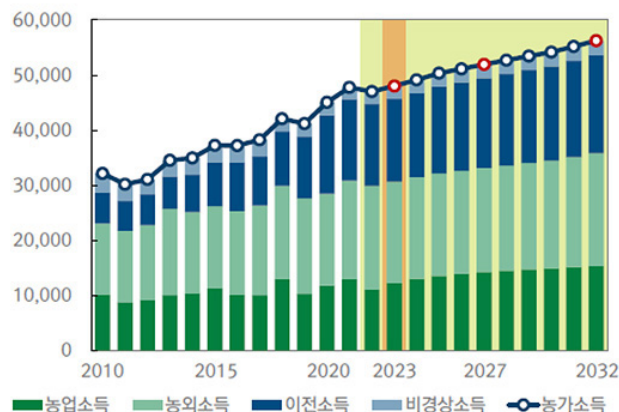
이전소득 전년대비 1.3% 증가한 1,505만 원 전망

∴ 공익직불금 예산 확대

비경상소득 전년대비 3.7% 증가한 233만 원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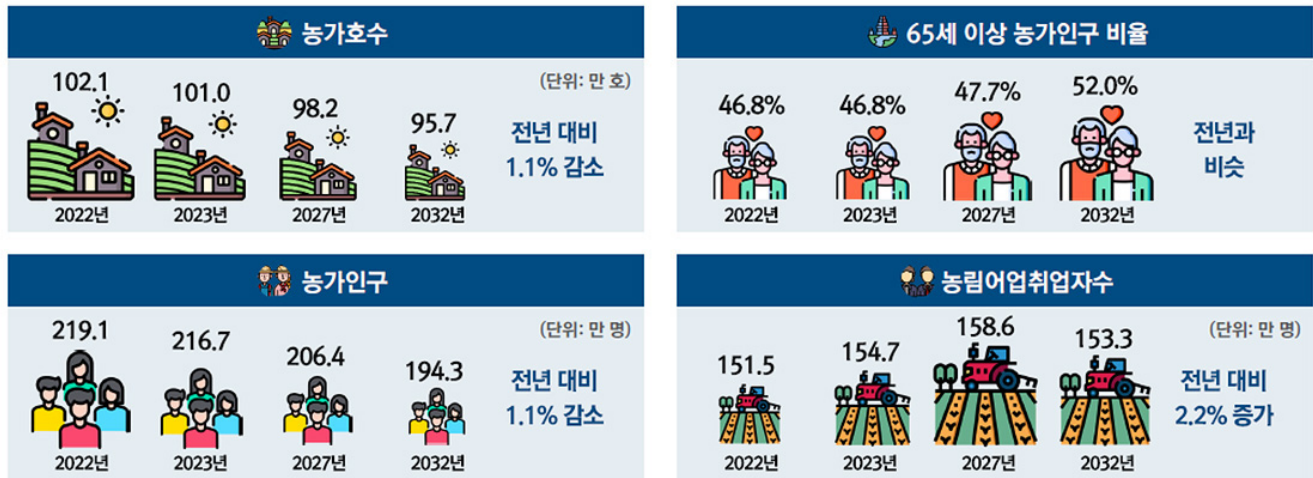
∴ 팬데믹 영향으로부터의 회복

(단위: 천 원)



자료: 통계청,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 (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)

2023년 농가호수, 농가인구 하락 추세 전망



※출처 : KREI농업관측센터 제26회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발표자료

2023 농업전망의 주요 내용

2023년 농업·농가경제 전망

■ (거시경제) 러-우 전쟁, 高물가 · 高금리 등 세계 경제 성장은 적신호

- (세 계) 팬데믹 상황 해제, 인플레이션 해소 등은 경제 성장을 견인하나, 에너지 · 식량 수급 차질, 물가 · 금리상승 지속 등으로 성장세 둔화 불가피
- * 세계경제 회복 지연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로 유가 하락('22: 98.5\$→'23: 87.2), 기준금리 인상으로 약세 가능성도 있으나 환율은 안정세('22: 1,292원/\$→'23: 1,304)
- (한 국) 민간소비는 완만한 회복세이나 대외여건 악화로 경제 성장세 둔화, 경기 위축 지속 등으로 '23년에도 한국 경제 전반의 성장세 제약

구분	2021	2022	2023	2022/2023
전 세계	5.9%	3.0%	2.0%	△1.0%
한 국	4.1%	2.6%	1.7%	△0.9%
민간소비	3.7%	4.7%	2.6%	△2.1%
설비투자	9.0%	△2.0%	△3.0%	△1.0%
건설투자	△1.6%	△2.4%	△0.3%	△2.1%
상품수출	10.5%	3.4%	△1.9%	△5.3%
소비자물가	2.5%	5.1%	3.6%	△1.5%

(농업생산) 규모 축소 및 생산량 감소 등으로 농업생산액 감소

- (경지면적) 농지 전용 수요 증가로 경지면적은 감소세 지속, 농가 수 감소로 호당 경지면적은 전년 수준(1.5ha)이나 점진적 증가
- (사육두수) 육류 및 계란 소비 증가로 가축 사육두수는 증가세
- (농업생산액) 쌀 · 과일류 생산량 감소 및 일부 채소 가격 하락으로 재배업 생산액 감소, 쇠고기 · 돼지고기 공급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과 종계 감소에 따른 계란 생산량 감소로 축산업 생산액 감소 전망
- (부가가치) 생산액 감소에도 불구하고, 비료비 등 중간재비 하락으로 증가

구분	2021	2022	2023	2022/2023
경 지 면 적(천ha)	1,547	1,532	1,517	△1.0%
사 육 두 수(백만 두)	185.3	191.8	189.0	△1.5%
농업생산액(십억원)	59,217	58,631	57,934	△1.2%
재 배 업	34,624	33,123	32,919	△0.6%
축 산 업	24,593	25,508	25,015	△1.9%
부 가 가 치(십억원)	31,871	28,221	30,265	7.2%
재 배 업	23,517	21,518	22,427	4.2%
축 산 업	8,355	6,703	7,838	16.9%

(농가경제) 교역조건 개선, 경영비 부담 완화로 농업소득은 증가 전망, 농가인구 감소, 고령화율 상승 등은 중장기 농업경영 안정화에 적신호

- (구입가격) 원자재 가격 안정화로 농업구입가격지수는 하락, 비료, 사료 등 투입재 가격은 하락하나 농업노임은 전년 수준 유지
- (판매가격) 곡물, 채소, 우제류 가격 하락으로 농가판매가격지수는 하락
- (교역조건) 구입가격지수 하락이 판매가격지수 하락보다 커 교역조건은 개선

구분	2021	2022	2023	2022/2023
구입가격지수('15=100)	114.7	145.4	133.1	△8.5%
투 입 재	106.3	144.2	127.8	△11.4%
노 임	135.3	152.7	152.4	△0.1%
판매가격지수('15=100)	128.7	126.1	122.1	△3.2%
곡 물	138.1	123.0	122.0	△0.8%
청 과 물	141.0	145.3	138.9	△4.4%
축 산 물	116.8	111.0	102.6	△7.6%
농업교역조건지수	112.2	86.7	91.8	5.8%

- (농업소득) 농업총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, 자재구입비 지원 등으로 농업경영비 부담이 완화돼 농업소득은 전년보다 증가 전망
- (농가소득) 사업외소득 감소로 농외소득은 감소, 직불금 영향으로 이전소득이 증가하고 팬데믹 회복으로 비경상소득이 증가하며 농가소득은 증가

구분	2021	2022	2023	2022/2023
농가소득(천 원)	47,758	46,989	48,019	2.2%
농업총수입	37,190	37,204	37,179	△0.1%
농업경영비	24,229	26,154	24,945	△4.6%
농업소득	12,961	11,050	12,233	10.7%
농외소득	17,883	18,838	18,405	△2.3%
이전소득	14,809	14,853	15,050	1.3%
비경상소득	2,105	2,248	2,331	3.7%

- (농가인구) 농림어업취업자 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, 농가인구 감소세 지속과 65세 이상 고령화율의 점진적 상승으로 인력공급 차질은 불가피

구분	2021	2022	2023	2022/2023
농가 수(만 호)	103.1	102.1	101.0	△1.1%
농가인구(만 명)	221.5	219.1	216.7	△1.1%
고령화율(%)	46.8	46.8	46.8	0.0%
농림어업취업자(만 명)	145.8	151.5	158.6	2.2%

■ (무역전망) 대외여건 개선과 정책 지원 강화로 농식품 수출은 청신호

- (농식품수입) 곡물, 채소, 축산물 수입량 감소로 농식품 수입액은 감소
- (농식품수출) 판로개척 지원, 물류지원 강화 등으로 농식품 수출액은 증가
 - * 수입액 : ('22) 412.7억\$ → ('23) 399.3
 - * 수출액 : ('22) 83.1억\$ → ('23) 90.2

■ 식량위기와 식량안보

- ▶ (식량위기) 소비량 증가, 이상기상 등으로 식량위기 발생주기 단축
 - (현 황) 세계 식량가격 급등락이 빈발함에 따라 30년 주기로 발생하던 국제곡물시장의 위기가 주기가 단축, '00년대 중반 이후 3회 발생
 - * 최근 두 차례 애그플레이션('07~'08, '11~'12)과 러-우 전쟁 등에 따른 공급망 위기 발생
 - (주요요인) 국제곡물 소비량 증가세 지속(수급요인), 수입곡물 의존 국가 증가, 잦은 이상기상, 곡물가격과 원재자 가격의 동조성 확대(수급외요인)
 - (국내영향) 곡물 가공품 가격상승은 축산업, 식품제조업, 외식업 등 유통채널로 전이되며 전반적인 소비자물가 상승을 초래
- ▶ (식량안보) 식량위기 대응 및 식량안보 우려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
 - (정책평가) 식량안보 정책은 중요도가 높지만 달성도는 매우 저조
 - (영역평가) 식량안보 수준 미흡(2.4/5.0), 접근성이 높지만 가용성은 저조
 - (종합지수) 69.2점으로 낮은 수준, 가용성 · 안정성 악화로 '16년 이후 하락세

■ 기후변화시대, 농가 경영안정

- ▶ (기후변화)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성 고조
 - (현 황) 기후변화의 광범위 · 점진적 진행으로 농업생산, 재배적지 이동 등 농업경영 위험이 증가하나 개별농가 단위로 대응은 곤란
 - (필 요 성) 대규모 · 불가항력적 위험에는 정부의 위험 분담 필요, 위험 요인별 유형화를 토대로 기후변화 대응 농가 경영안정 정책 마련
 - * 재해보험(소득변동성 완화)과 공익직불제(소득안전망 강화)가 핵심 수단으로 정착할 필요
- ▶ (정책제언) 농업인-정책 간 양방향 소통 기반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
 - (농업보험) 기후변화 신규 수요를 반영한 상품개발, 농가 단위 보험 도입
 - (정책연계) 탄소중립 직불제 신설 및 참여농가 보험료 할인 등 검토
 - (기반조성) 맞춤형 예방지원 시스템 구축, 직불제 준수사항 조정 및 지급단가 상향

■ 신규인력 유입 전략

▶ (일자리구조) 지역 단위의 일자리 제공 측면에서 농업 부문의 역할 중요

- (현 황) '17년 이후 농업경영주, 무급가족종사자, 상용근로자가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, 정책 차원의 신규인력 유입을 지속하는 전략 필요
- (신규경영주) 소득 · 재배기술 부족은 진입 초기 애로요인, 노동력 · 토지확보, 자금 마련 등은 경영체 운영 애로요인, 농업교육 확대 및 자금지원 정책 필요

▶ (유입전략) 농업취업 전체를 조망하는 신규인력 유입전략 마련

- (개념확대) 전통적 인력육성 정책을 농업일자리정책으로 확대
 - * 신규인력의 대상으로 농업경영주와 농업임금근로자 포괄, 노동수요자-공급자 간 효율적 매칭 제공, 근로환경 개선 등을 종합해 농업 일자리 전반을 대응
- (정보제공) 탐색 · 준비-진입-운영 단계까지 종합적 정보제공, 농업법인 취업정보 접근성 강화, 농업법인 취업정보를 포함한 일자리 플랫폼 개발 등
- (정책개선) 고용센터 연계 정보제공, 귀농 · 귀촌 통합플랫폼 활용 온라인 정보제공, 신규인력 대상 농업교육 신설 및 수준별 · 연속적 교육 추진

■ 바이오소재농업의 현황과 과제

▶ (산업전망) 국내외 바이오소재산업 성장세 뚜렷하나 농업은 하락세

- (개 념) 생명자원을 활용한 농업 활동으로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, 건강기능식품, 바이오 농약 · 비료, 바이오소재 의약품 등이 해당
- (현황 · 전망) 투자 증가가 지속되며 글로벌 바이오소재산업 규모는 성장 전망, 국내에서도 건강 관심 증가로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산업의 성장 예상
- (문 제 점) 바이오소재산업의 성장에 따른 부가가치가 바이오소재농업으로 순환 불충분 및 취약한 기반 등으로 바이오소재농업의 성장을 저해

▶ (활성화방안) R&D 패키징, 기업 · 산학관연 협력 및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

- (연구플랫폼) 가치사슬 단계별(소재 발굴-생산-산업화-소비) 패키지화된 연구플랫폼 개발
 - * 고품질 종자 개발, 표준화된 생산관리체계 정립, 원천기술 및 핵심기술 확보 필요
- (생산체계) 거점 클러스터 형성, GAP 도입 등 안정적 생산체계 확립
- (거버넌스)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 및 농업-기업 협력체계 구축

■ 푸드테크, 트렌드와 미래전망

▶ (산업동향) 푸드테크 시장의 성장세 부각, 산업 · 제도적 대응 필요

- (시장규모) 국내외 푸드테크 시장은 연평균 6% 이상 성장 전망, 국내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약 61조원으로 추정되며 '17년 이후 비약적 성장
 - * 성장요인 : 혁신기술 등장, 가치소비 인식, 최저임금 상승 · 인력난, 고령화 · 초개인화 소비
 - * 관련분야 : 식물공장, 대체식품, 물류 · 유통 디지털화, 배달 APP · 무인화, 조리 · 서빙로봇 등
- (시장동향) 식물공장 ·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의 성장 가속화, 온라인 식품 시장의 성장과 플랫폼 확대, 배달APP 도입 점포와 무인화 점포 증가, 서빙 · 조리로봇 활용 증가로 로봇틱스 시장의 성장세 뚜렷
- (정책현황) 농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신설,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발의
- ▶ (발전과제) 분야별 지침 · 제도 정비 및 스타트업 성장 지원
 - (규제개선) 스마트농업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, 식물성 대체식품 · 배양육 제도기준 등 지침 마련,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등 제도정비
 - (진흥지원) 스타트업 R&D 투자 확대, 금융인프라 조성, 선제적 규제개선

■ 온라인 기반 농산물 유통 혁신

- ▶ (온라인유통) 온라인 B2C · B2B 거래 증가, 효율적 거래환경 조성 필요
 - (유통실태) 팬데믹 이후 농식품 온라인 거래액 급증, B2C 시장 규모화 및 유형(오픈마켓, 풀필먼트) 재편, 도매시장 등 유통주체의 온라인 B2B 거래 증가
 - * 오픈마켓형 : 판매자 직접 상품 등록 및 별도의 배송업체(제휴) 활용 상품배송
 - * 풀필먼트형 : 물류센터 기반 직매입한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, 자체배송 네트워크 활용
 - (유통전망) 온라인 도소매 거래규모는 성장 전망, B2C 거래는 비용 조정 및 납품기준 완화, B2B는 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 효율화가 당면과제
- ▶ (핵심과제) 온라인 공영거래 활성화, 물류 정보화 · 효율화 기반 유통혁신
 - (공영거래소) 지능형 유통정보 인프라 구축, 전국단위 유통망 형성, 유통비용 절감
 - (물류정보화) 생산-유통-ラスト마일 단계 통합적 물류정보 생성 · 연계체계 구축
 - (물류효율화) 농가수취가격 제고 및 소비자후생 증대, 물류서비스 품질 향상
 - (유통혁신) 농가소득 제고, 온라인 거래 공정질서 확립, 온오프라인 유통 상생

■ 농촌 생활서비스 혁신

- ▶ (생활서비스) 혁신적 생활서비스 공급 및 체계적 · 계획적 공공투자 필요
 - (현 황) 농촌인구 감소, 고령화 · 저출산, 저밀도 분산거주 진전 등은 농촌 생활서비스 부족과 농촌 주민 삶의 질 저하를 초래

- (문 제 점) 도농 간 양 · 질적 서비스 격차 발생, 시설 · 대중교통 접근성 취약, 농촌 생활서비스 공급 주체 이탈 및 분산지역 서비스 전달 미흡
- (정책동향) 삶의질향상특별법('04) 제정 후 서비스 확충을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('07),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('23)
- ▶ (혁신방향) 거점 조성, 전달체계 혁신, 사업 기능 강화, 서비스 혁신
- (혁신거점) 농촌공간계획 기반 스마트한 3 · 6 · 5 생활권으로 공간 재구조화
- (전달혁신) 원격의료서비스, AR · VR 활용 에듀테크, 자율주행 버스 도입 등
- (사업혁신) 생활SOC-일자리사업 통합, 지자체-정부 연계 및 자체사업 발굴
- (서비스혁신) 주민참여 확대, 공동체 주도 사회 실험, 재정 지원, 거버넌스 강화

■ 농촌공간계획, 제도화의 원년

- ▶ (공간계획) 농촌기능 회복, 농촌다움 복원을 지원하는 중장기 계획 필요
- (현 황) 농촌인구 감소, 기능 저하, 인식 약화 등 농촌지역의 소멸 우려 제기, 농촌계획제도의 한계를 탈피한 농촌 재생을 조망하는 정책 필요
- (기본골격)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삶터 · 일터 · 쉼터로서 농촌의 기능을 회복 또는 증진시키는 재생을 위한 계획, 기본방침, 기본계획, 시행계획으로 구성
- (주요내용) 농촌특화지구 도입(토지이용), 공간정비 및 기능 재생(사업체계), 농촌협약, 주민협정, 정책심의회 및 정책지원 기관 등 체계 구축(추진체계)
- ▶ (준비방안) 주민참여 · 정책연계 강화로 유기적 농촌재생 추진
- (주민참여) 장기계획 수립 및 아젠다 구체화, 특화지구-재생사업 연계 강화
- (계획연동) 농촌공간계획과 시군계획 등 다른 중장기 계획 간 연동 강화
- (재생모델) 위해시설 · 인프라 정비, 농촌다움 활용 등 농촌여건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농촌재생모델 발굴

☞ 품목별 동향 및 전망

'23년 생산량(전년 대비) 전망

(곡물) 쌀(△3%), 콩(17%), 감자(9%)

(채소) 배추(△0.9%), 무(1.3%), 당근(32.6%), 양배추(△6.5%), 건고추(△1.6%), 마늘(8.6%), 양파(9.6%), 대파(12.2%)

(과채) 오이(5%), 호박(13%), 풋고추(7%), 파프리카(2%), 토마토(4%), 딸기(17%), 수박(1%), 참외(△1%)

(과일) 사과(△6.4%), 배(△20.3%), 감귤(1.6%), 복숭아(△3.4%), 포도(7.6%), 단감(7.8%)

(축산) 쇠고기(7.7%), 돼지고기(△0.6%), 원유(△1.7%), 닭고기(△1.2%), 계란(0.1%), 오리고기(△5.7%)

■ 식량

▶ (쌀) '23년 재배면적(1~2%) · 생산량(3%) 감소, 가격상승(9%)

- (동향) 작황 부진으로 '22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3% 감소(376만톤), 정부의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전년산 가격의 역계절진폭 발생 등으로 수확기 쌀 가격은 '22년 단경기 대비 10% 상승(46,817원/20kg)
- ('23년전망)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등에 따른 생산량 감소(3%)에도 불구하고 정부매입량 증가로 '23년 시장공급물량은 전년 대비 9% 감소(318만톤), 단경기 · 수확기 가격은 9% 상승(51,000원/20kg)
- (중장기전망) 경지면적 감소, 고령화 등으로 생산량 감소세가 지속 전망, 식생활 패턴 변화로 소비량 감소도 지속될 전망

▶ (콩) '23년 재배면적 유지, 생산량(17%) 증가, 가격하락(7~8%)

- (동향) 논콩(쌀 적정생산 정책)과 밭콩(출하기 가격 호조) 재배면적 증가로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7% 증가(6만4천ha), 밭콩 작황은 저조했으나 논콩 주산지 작황 양호로 전체 콩 생산량도 17% 증가(13만톤)
- ('23년전망) 시장가격 하락으로 농가수취가격이 정부수매가격보다 낮아 '23양곡연도 수매량은 증가, 단경기 가격은 7~8% 하락(5,500원/kg 선)
- (중장기전망) 고령화에 따른 밭콩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략작물직불제 도입으로 논콩 재배면적과 생산량 증가, 식문화 변화로 소비량은 감소

▶ (감 자) '23년 재배면적 · 생산량(9%) 증가로 가격 안정화 전망

- (동향) 고랭지감자(기상여건 양호)와 가을 · 시설 봄감자(면적 증가)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,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으로 노지 봄감자의 생산량이 감소하며 전체 생산량은 전년보다 12% 감소(20,195천톤)
- ('23년전망) 전년 가격이 높아 노지 봄감자와 고랭지감자 재배의향이 고조돼 재배면적은 각 7%, 9% 증가, 생산량도 각 12%, 3% 증가(전체 9% 증가)
 - * 정부는 '22년산 가을감자와 '23년산 시설봄감자의 재배면적 확대 방침을 발표하고, '23년 노지봄감자 대상 사전매입 약정 체결 및 수매를 토대로 감자 수급안정 도모
- (중장기전망) 생산비 증가 및 노동력 감소 등으로 장기 재배면적 · 생산량은 감소하나 저장처리냉동 감자 수입량 증가 지속으로 공급량 증가 전망

■ 채 소

▶ (배 추) '23년 전체 재배면적(0.2%), 생산량(0.9%) 감소

- (동 향) 가을배추(정식기 고가 지속) 재배면적 증가에도 봄배추(전년 출하기 도매가격 하락), 여름배추(전년 출하기 도매가격 하락, 휴경, 작목전환), 겨울배추(작목전환) 재배의향 감소로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.4% 감소(3만80ha), 가을배추 생산량 증가에 기인해 전체 생산량은 6.7% 증가(221만1천톤)
- ('23년전망) 여름배추 재배면적 증가에도 가을배추와 봄배추 재배면적 감소로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.2% 감소, 생산량은 0.9% 감소
 - * 정식기 도매가격 하락과 공급량 증가 등으로 전체 재배면적은 감소 전망
- (중장기전망) 양배추 등 대체품목 증가, 김장수요 감소, 식습관 변화 등 배추 수요 감소로 전체 배추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감소 전망
 - * '23년 이후 국내 생산량 감소와 수입량 증가로 배추 자급률 하락 전망

▶ (무) '23년 재배면적(0.7%) 감소하나 생산량(1.3%)은 증가

- (동 향) 가을무(가격 호조, 기상 양호) 재배면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른 작형의 재배면적 감소(가격 하락, 작목전환 등)로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.5% 감소(2만179ha), 생산량은 재배면적 및 단수 감소(생육기 · 출하기 기상 부진)로 2.9% 감소(113.8천톤)
- ('23년전망) 여름무 외 타 작형 재배면적 감소(기상 부진, 기대가격 저조)로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.7% 감소, 생산량은 1.3% 증가
- (중장기전망) 식습관 변화, 김장수요 감소, 겨울무 공급 과잉에 따른 산지 면적 조절 등으로 재배면적은 감소, 단수 변화는 크지 않지만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은 감소 전망

▶ (당 근) 여름 · 가을 재배면적 증가로 재배면적(21.8%), 생산량(32.6%) 증가

- (동 향) 여름당근(수확기 가격 호조) 재배면적 증가에도 겨울당근(태풍), 가을당근(출하기가능기간 단축, 작목전환)의 재배면적 감소로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5.9% 감소(2,345ha), 재배면적 감소와 단수 감소(생육기 기상 부진, 태풍)로 전체 생산량은 28.3% 감소(71천톤)
- ('23년전망) 봄당근(수익성 악화, 작목전환) 재배면적 감소에도 여름당근과 가을당근(전년 출하기 가격 호조) 재배면적 증가로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1.8% 증가, 부진했던 '22년의 기저효과로 생산량도 32.6% 증가
- (중장기전망) 겨울당근 산지 면적 조절과 외식소비 증가에 따른 국산 당근 수요 감소(외국산 수요 증가)로 당근 재배면적 · 생산량 감소 전망

▶ (양 배 추) 수익성 악화 우려 등으로 재배면적 · 생산량(6.5%) 감소

- (동 향) 여름양배추 재배면적 유지에도 봄(겨울양배추 출하량 증가), 가을(소비 감소), 겨울(태풍) 양배추 재배면적 감소로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.3% 감소(7,550ha), 단수 감소(기상 악화)로 생산량은 3.9% 감소(37만1천톤)
- ('23년전망) 생산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 등으로 '23년 전체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6.5% 감소
- (중장기전망) 배추에서의 작목전환, 식습관 변화 등 수요 증가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증가 전망, 자급률 및 1인당 소비량도 꾸준한 증가 예상

▶ (건 고 추) 작황 부진 등으로 재배면적(3.3%), 생산량(1.6%) 감소

- (동 향) 재배면적은 도매가격 하락 영향으로 전년 대비 10.8% 감소(29,770ha),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생산량은 21.2% 감소(62,916톤)
- ('23년전망) 견고추 재고량('22년 말)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13.8% 감소, 전년 작황부진, 인건비 상승 등 재배의향 저조로 재배면적은 3.3% 감소
- (중장기전망) 농가 고령화에 따른 재배 기피, 노동력 부족 등으로 재배면적 감소, 국내 생산량은 단기적 변화는 작지만 장기적으로 감소세 지속 전망

▶ (마 늘) '22년산 가격 호조로 재배면적(2.5%) · 생산량(8.6%) 증가

- (동 향) 재배면적은 '21년산 가격 호조로 전년 대비 0.7% 증가(23,686ha), 재배면적 증가에도 단수가 감소하며 생산량은 7.1% 감소(29만톤)
- ('23년전망) '22년산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'23년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.5% 증가, 생산량은 8.6% 증가
- (중장기전망) 고령화, 생산비 상승 등 재배의향 저조로 재배면적 감소 지속, 재배기술 발달 등으로 단수는 증가하나 장기적 생산량은 감소 전망

▶ (양 파) 재배면적은 전년 수준이나 단수 증가로 생산량 증가(9.6%)

- (동 향) '21년산 가격하락으로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5.5% 감소(17,521ha), 생산량은 15.5% 감소(115.7만톤)
- ('23년전망) 수확기 전 가격 저조로 재배의향이 감소했으나 수확기 후 가격 호조로 재배의향이 증가해 재배면적은 전년과 유사(17,501ha), 단수 증가로 생산량은 9.6% 증가
- (중장기전망) 장기적으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증가, 수입량은 8만톤 수준 유지

▶ (대 파) 가격하락으로 '23년 재배면적(3.1%), 생산량(12.2%) 감소

- (동 향) 정식기 가격하락으로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9.9%(10,550ha), 감소, 생산량도 7.2% 감소(35.9만톤)
- ('23년전망) 봄대파 재배면적(정식기 가격상승)은 전년 대비 6.5% 증가, 겨울대파(가격하락)으로 6.3% 감소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각 3.1%, 12.2% 감소
- (중장기전망) 생산비 상승, 소비량 감소 등으로 재배면적과 생산량 감소 전망

▶ (오 이) 가격 호조로 재배면적(1%) 증가, 단수 증가로 생산량(5%) 증가

- (동 향) 작목전환 증가로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7% 감소(3.8천ha), 기상부진 등에 따른 단수 감소로 생산량은 8% 감소(26만2천톤)
- ('23년전망) 재배면적은 출하기 가격상승으로 전년 대비 1% 증가, 기상여건 호조로 단수가 증가해 생산량은 5% 증가
- (중장기전망) 시설 첨단화 진전으로 단수는 증가하나 고령화, 노동력 부족 등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은 감소 전망, 소비량도 소폭 감소 전망

▶ (호 박) 작목전환 의향 증가로 재배면적(1%) · 생산량(13%) 증가

- (동 향) 노지 재배는 감소하나 시설 재배 증가로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과 유사(8,249ha), 단수 감소로 생산량은 2% 감소(23만9천톤)
- ('23년전망) 가격상승 기대, 작목전환 의향 증가로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% 증가, 단수 증가로 생산량은 13% 증가

- (중장기전망) 작목전환 증가, 단수 증가 등으로 재배면적과 생산량 증가
- ▶ (풋 고 추) 가격상승으로 재배면적(5%) 증가, 단수 증가로 생산량(7%) 증가
 - (동 향) 기상여건 호조에 따른 단수 증가에도 불구하고, 출하기 가격하락으로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4% 감소(3,758ha), 생산량은 10% 감소(15만1천톤)
 - ('23년전망) 전년 출하기 가격상승에 따른 정식의향 증가로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5% 증가, 기상 호조로 단수가 증가하며 생산량은 7% 증가
 - (중장기전망) 고령화, 노동력 부족으로 재배면적 감소와 생산량 감소 전망
- ▶ (파프리카) 겨울작형 규모화로 전체 재배면적 증가(1%), 생산량(2%) 증가
 - (동 향) 작목전환 증가, 재배규모 축소 등으로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% 감소(705ha), 작황 부진으로 단수가 감소하며 생산량은 5% 감소(7.7만톤)
 - ('23년전망) 여름작형 재배면적은 작목전환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, 겨울작형의 재배규모 확대로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% 증가, 기상여건 호조로 단수가 증가하며 생산량은 2% 증가
 - (중장기전망) 기존 농가의 규모화 진전으로 재배면적 증가, 재배기술의 발전으로 단수가 증가하며 생산량 증가 전망
- ▶ (토 마 토) 신규농 증가로 재배면적(0.4%) 증가, 단수 증가로 생산량(4%) 증가
 - (동 향) 재배면적은 작목전환 증가로 전년 대비 2% 증가(6,111ha), 작황 부진으로 단수가 감소하며 생산량은 1% 감소(36만6천톤)
 - ('23년전망) 일반토마토 신규 진입농 증가 등으로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.4% 증가, 겨울철 생육 양호로 단수가 증가하며 생산량은 4% 증가
 - (중장기전망) 건강 중시 식문화 확산으로 일반토마토와 대추형방울토마토 중심으로 재배면적 증가, 수경재배 등 생산성 향상으로 생산량 증가 전망
- ▶ (딸 기) 재배면적(2%) 감소에도 단수 증가로 생산량(17%) 증가
 - (동 향) 가격 호조에도 고령화로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6% 감소(5,745ha), 기상 악화에 따른 단수 감소로 생산량은 15% 감소(150.7천톤)
 - ('23년전망) 고령화, 노동력 부족으로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% 감소, 기상여건 양호로 단수가 증가하며 생산량은 17% 증가
 - (중장기전망) 재배여건 개선으로 재배면적 증가, 고설재배 면적 확대에 의한 단수 증가로 생산량은 증가 전망
- ▶ (수 박) 재배면적(1%) 감소에도 단수 증가로 생산량(1%) 증가
 - (동 향) 시설 면적(인력부족 등)은 감소했으나 노지 면적이(가격 호조) 증가해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 수준(1만2천ha), 단수 감소로 생산량은 5% 감소(46만5천톤)
 - ('23년전망) 양파, 멜론 등 작목전환 증가로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% 감소, 단수 증가로 생산량은 전년 대비 1% 증가
 - (중장기전망) 시설 첨단화 등 기술 발전으로 단수가 늘어나지만 고령화에 따른 작목전환 증가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감소 전망
- ▶ (참 외) 작목전환, 고령화로 재배면적(1%) · 생산량(1%) 감소

- (동 향) 주산지(경북) 재배면적 증가로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% 증가, 단수 감소(착과지연, 고온피해)로 생산량은 5% 감소(18만9천톤)
- ('23년전망) 작목전환, 고령화로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% 감소, 작황 개선에 따른 단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1% 감소
- (중장기전망) 농가수 감소, 고령화, 인력부족 등으로 재배면적 감소, 시설 첨단화 등 기술 발전에 따른 단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감소 전망

과 일

▶ (사 과) 재배면적은 전년 수준에서 정체, 생산량(6.4%)은 감소

- (동 향) 성목면적(고령화 등) 감소에도 유목면적(품종갱신) 증가로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% 증가(34,603ha), 병 발생 감소 및 대과비율 상승 등으로 생산량은 10% 증가(56.6만톤)
- ('23년전망) 기 식재 신품종의 성목화로 유목면적은 감소하나 성목면적이 증가해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과 유사, 단수 감소로 생산량은 6.4% 감소
- (중장기전망) 고령화에 따른 폐원, 재배적지 복상 등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재배면적과 생산량 감소 전망

▶ (배) 고령화 등으로 재배면적이 감소(2%)하며 생산량도 감소(20.3%)

- (동 향) 성목면적 감소(고령화, 인력부족)에도 유목면적 증가(신품종 신규식재)로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과 유사 (9,680ha), 단수 증가(개화기 저온피해 미미, 생육기 기상호조)로 생산량은 19% 증가(25만1천톤)
- ('23년전망) 유목면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목면적 감소로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% 감소, 재배면적 감소의 영향으로 생산량은 20.3% 감소
- (중장기전망) 고령화, 도시개발, 신규과원 감소로 재배면적은 감소, 재배면적 감소의 영향으로 생산량도 감소 전망

▶ (감 굴) 재배면적은 전년 수준이나 신규식재 증가로 생산량 증가(1.6%)

- (동 향) 성목면적 감소(폐원 증가)에도 유목면적 증가(신규식재 증가)로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과 유사(22,126ha), 성목단수 감소(낙과량 증가 등)로 생산량은 2% 감소(62.3만톤)
- ('23년전망) 성목면적 감소(고목화)에도 유목면적 증가(작형전환, 품종갱신 증가)로 재배면적은 전년과 유사 (온주감굴 재배면적 감소, 만감류 재배면적 증가), 전체 감굴 생산량은 1.6% 증가
- (중장기전망) 유목면적의 증가세는 지속되나 성목면적(폐원 증가, 도시개발 등) 감소로 전체 재배면적은 소폭 감소, 재배면적 감소의 영향으로 생산량도 장기적으로 감소 전망

▶ (복 송 아) 성목면적 감소로 재배면적 감소(1%), 생산량 감소(3.4%)

- (동 향) 성목면적 감소(폐원 증가, 품목전환 등)에도 불구하고, 유목면적 증가(천도계 신품종 및 유모계 조 · 만생종 식재 증가)로 전체 재배면적은 4% 증가(20,314ha), 단수 증가(생육기 작황 호조)로 생산량은 6% 증가(2만4천톤)
- ('23년전망) 유목면적 증가(품종갱신, 식규식재 증가)에도 불구하고 성목면적 감소(폐원증가, 품목전환, 품종갱신)로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% 감소, 재배 면적 감소의 영향으로 생산량은 3.4% 감소

- (중장기전망) 성목면적은 장기적으로 감소하나 신규과원 형성이 적어 전체 재배면적은 감소 전망, 유목의 성목화, 내병성 강화 등 품종 전환으로 단수가 증가함에도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 감소 전망
- ▶ (포 도) 샤인머스켓 유목의 성목화로 재배면적(1%) 증가, 생산량(7.6%) 증가
 - (동 향) 샤인머스켓 신규 재배 확대 및 기 식재 샤인머스켓 유목의 성목화로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0% 증가 (14,655ha), 생육기 작황 양호, 샤인머스켓 유목의 성목화에 따른 단수 증가로 생산량은 17% 증가(19만6천톤)
 - ('23년전망) 유목의 성목화로 성목면적이 증가하며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% 증가, 샤인머스켓 성목면적 증가로 생산량은 7.6% 증가
 - (중장기전망) 샤인머스켓으로의 품종갱신, 유목의 성목화 진전으로 재배면적은 증가세이나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며 '32년 이후 감소, 단수가 높은 샤인머스켓 성목면적 증가로 생산량은 증가하다 감소 전망
- ▶ (단 감) 성목면적 감소로 재배면적(2%) 감소, 생산량(7.8%) 감소
 - (동 향) 전년산 작황부진에 따른 가격 강세 영향과 고수익성 태추,신품종(원미 등) 신규 식재 증가로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7% 증가(9,477ha), 작황 호조로 단수가 증가하며 생산량은 16% 증가(11만6천톤)
 - ('23년전망) 유목면적 증가(신품종 식재 증가)에도 성목면적 감소(고령화, 샤인머스켓 품목전환)로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% 감소, 생산량 7.8% 감소
 - * 부유, 서촌조생 등 전통 품종 재배면적 감소, 태추, 원추, 등 신품종은 재배면적 증가
 - (중장기전망) 고령화, 폐원 증가로 재배면적은 감소 전망, 재배면적 감소의 영향으로 생산량 감소세가 지속 전망

축 산 물

- ▶ (한 육 우) 사육규모 확대로 소고기 생산량(7.7%) 증가
 - (동 향) 육우 사육두수는 감소했으나 가임암소와 송아지 생산 증가로 한우 사육두수는 전년 대비 4% 증가 (3,552천두), 도축두수 증가(9.1%) 및 도체중 증가로 소고기 생산량은 15.1% 증가(28만8천톤)
 - ('23년전망) 누적입식두수 증가로 한우 사육두수는 전년 대비 0.6% 증가, 송아지 생산량 증가와 도축두수 증가로 소고기 생산량은 7.7% 증가
 - (중장기전망) 사육두수 확대로 생산량 증가가 '24년까지 이어지다 이후 '27년까지 감소, 한우고기 가격 하락으로 수입량은 감소하나 가격 반등 시 수입량 증가 전망
- ▶ (돼 지) 사육규모 · 도축두수 축소로 돼지고기 생산량(0.6%) 감소
 - (동 향) 생산비 상승으로 모든 사육두수 감소하며 연평균 사육두수는 전년 대비 0.1% 감소(1,120.5만두), 생산성 향상으로 도축두수가 증가하며 돼지고기 생산량은 0.9% 증가(110.7만톤)
 - ('23년전망) 모든 사육의향의 하락세 전환으로 사육두수는 전년 대비 0.3% 감소, 사육두수 감소로 도축두수도 감소하며 돼지고기 생산량도 0.6% 감소
 - (중장기전망) 생산성 회복으로 '23년 이후 사육두수와 도축두수가 증가하며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 전망, 수입량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며 자급률 하락
- ▶ (젓 소) 사육규모 축소 등으로 원유 생산량(1.7%) 감소

- (동향) 원유 기본가격 조정 지연, 생산비 상승 등 경영여건 악화로 젖소 사육두수는 전년 대비 2.6% 감소(39만두), 착유우 사육두수 감소로 원유 생산량은 2.8% 감소(197.8만톤)
 - ('23년전망) 두당 산유량은 전년과 유사하나 사육두수 감소 및 기상·조사료 수급여건 등으로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1.7% 감소 전망
 - (중장기전망) '23년 이후에도 영세·소규모 농가의 폐업 지속, 대규모 농가 중심의 규모화·전업화 진전으로 전체 사육두수가 감소하며 원유 생산량 감소세는 지속 전망, 반면 유제품 수입량은 증가
- ▶ (육계) 사육규모 및 도축두수 감소로 닭고기 생산량(1.2%) 감소
- (동향) 육용 종계 사육두수 감소 및 산란율 하락으로 사육두수는 전년 대비 1.4% 감소(9,449만두), AI 발생에 따른 산란율 저하로 도축두수가 4.2% 감소, 닭고기 생산량은 1.9% 감소(62.9만톤)
 - ('23년전망) 병아리 생산 잠재력 하락으로 사육두수는 전년 대비 1.3% 감소, 도축두수도 감소해 닭고기 생산량은 1.2% 감소
 - (중장기전망) 종계 및 육계 생산성 향상으로 사육두수는 완만한 증가 전망, 관세 인하와 수입단가 하락으로 수입량 증가
- ▶ (산란계) 사육두수 증가로 계란 생산량(0.1%) 증가하나 6월 이후 감소
- (동향) 국내 산란종계 입식두수 감소(종계 수출국 HPAI 발생)에도 '21년 종계 입식 증가에 따른 산란 실용계 병아리 입식두수 증가 등으로 전체 사육두수는 전년 대비 8.3% 증가(7,347만두), 계란 생산량은 3.2% 증가(71만톤)
 - ('23년전망) 전년 종계 입식 감소로 산란계 사육두수는 전년 대비 1.3% 감소, 6개월령 이상 사육두수 증가로 계란 생산량은 0.1% 증가하나 6월 이후 감소 우려
 - (중장기전망) 사육두수의 지속적 증가가 전망되는 가운데 '25년 9월 사육밀도 조정으로 증가세는 둔화, 계란 생산량은 꾸준한 증가 전망
- ▶ (오리) HPAI 여파로 사육두수가 감소하며 오리고기 생산량(5.7%) 감소
- (동향) '21년 종오리 입식두수 증가로 육용오리 입식두수는 전년 대비 17.0% 증가, 전년보다 도축두수가 22.3% 증가하며 오리고기 생산량은 15.8% 증가(11만3천톤)
 - ('23년전망) '22년 하반기 HPAI 여파로 육용오리 사육두수는 전년 대비 8.6% 감소(708.9만두), 사육두수 감소로 오리고기 생산량은 5.7% 감소(10만6천톤)
 - * '22년 12월 이후 원종오리 및 종오리 수입재개로 '24년 이후 오리고기 생산량 증가
 - (중장기전망) 입식 증가로 사육두수는 완만한 증가세, 생산량도 증가